

## 넉넉한 인심·눈부신 풍광... 숨겨진 보석같은 섬마을

바다 보며 둘레길 걷고 해상펜션서 낚시 삼매경 빠지고  
참전복·반건조우럭에 이연복 셰프도 감탄한 막걸리 일품  
마을의 자랑 청석포 몽돌해변서 여유롭고 행복한 추억

### 찾아오시는 길

여수 개도 신흥마을 (전남 여수시 화정면 신흥길 40)

####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신대교차로‘여수, 목포’방면→해룡교차로‘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울촌’방면→교동사거리‘돌산대교, 여객선터미널’방면→여수 연안여객선 터미널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여수종합버스터미널→여수시내버스 88, 82, 80, 999번 ‘중앙시장 정류장’하차(20~25분 소요)→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도보3분)

#### ▶ 열차

서울역, 울산역, 영등포역→여수엑스포역→여수시내버스 2, 6, 7번 ‘중앙시장 정류장’하차(20~25분 소요)→여수연안여객선터미널(도보3분)

정말 오랜만에 섬으로 떠난다. 20분 넘게 배를 타 보는 건 얼마 만인가.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승선 후, 배가 출발하기 전 주위 풍광을 둘러본다. 1.5km 길이의 국내 최초 해양 케이블카는 부지런히 사람을 실어나르고 멀리 돌산대교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드디어 출발. 며칠 째 35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바다는 시원한 바람을 선사했다. 후텁지근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마치 가을바람 같은 선선한 바람 덕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다. 편안히 쉬 수 있는 선실 대신, 갑판에 나와 앉은 이들의 얼굴에선 여유로움이 넘친다. 시원한 바닷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긴 후 50여분을 달리니 멀리 선착장이 보인다.

오늘의 목적지는 여수시 화정면 개도 신흥마을. 주위의 작은 섬들을 거느린다는 뜻으로 ‘개(薺)’자를 써 ‘개도’라 불리는 섬이다. 또 마을 뒷쪽에 봉화산(338m)과 천제봉(335m)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두 귀처럼 보여 개도라 부른다는 설도 있다. 개도 북쪽에는 여수반도, 북동쪽에 돌산도, 남동쪽에 금오도가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8.7km, 해안선 길이는 25.5km다. 51가구 80여명이 살고 있는 신흥마을은 개도에서 두번째로 큰 마을이다.

배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우릴 반긴 건 선착장 매표소 옆 담벼락에 그려진 소박한 생채취베리의 ‘어린왕자’ 벽화다. 남도 끝자락 ‘섬마을’의 어린왕자라.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어린왕자와 썩 닮지는 않은 모습에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다.

마을로 접어드는 길엔 벌써 코스모스가 피었다. 마을회관 앞 정자는 명당자리다. 시원한 바람이 여름을 잊게 만든다. 동네 사랑방 구실을 하는 정자에선 어르신들 20여명이 앉아 세상사는 이야기 나누며 음식을 나눠 드시는 중이다.

가족같은 마을이다. 어른들을 공경한 다. 말린 우럭이랑 미역이 맛있으며 동네

자랑 하기 바쁜 어르신들이 이구동성 소개한 곳이 있다. ‘청석포’다. 동네 사람들 학창시절 봄·가을 소풍을 다니던 곳이란 다. 봄이면 진달래 따라 화전놀이 다니던 곳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곤장 청석포로 향했다. 등산로를 오른 쪽으로 끼고 오면 정도 움직이니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인다. 작렬하는 햇살을 받은 바닷물은 눈부시다. 맨들맨들한 몽돌이 일품인 해변인데 태풍으로 다른 돌이 섞여 들어와 조금은 아쉽다. 안내를 맡은 어촌계장의 말에 따르면 날이 맑을 때면 멀리 초도와 제주도까지 보인다고 한다. 오른쪽 울창한 소나무숲 사이로는 최근 개도의 명물이 된 둘레길이 보인다.

‘개도 사람길’은 지난해말 1~2코스가 완성됐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입소문’이나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코스는 화산 신흥구-여석 전망대-모전을 걷는 4km 구간으로 1시간 15분정도가 소요된다. 2코스(1시간 15분 소요)는 모전-솔머리-청석포에 이르는 4.2km 구간이다. 현재 3코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며 앞으로 4코스도 개발될 예정이다.

개도의 명물은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해상 펜션이다. 마을 이장의 작은 배를 타고 바다 위 펜션을 찾았다.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둔 외관이 인상적인 펜션은 꽤 넓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바깥 계단을 타고 펜션 건물 위로 올라가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바닷 물결에 살랑살랑 움직이는 흐름에 몸을 맡기니 상념이 날아간다. 펜션 주위의 공간에선 낚시하기 그만이다. 의자를 내어놓고 독서하기도 딱 좋을 듯하다. 노을이 질 때면 근사한 풍경도 보일 터다. 펜션은 모두 3채로 한 채당 최대 15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격은 10만~15만원 선이다.

신흥마을 특산물은 연간 4억원어치를 생산하는 참전복이다. 적정한 수온과 함께 철



푸른 바다와 봉화산을 품고 있는 여수시 개도 신흥마을은 조용히 머물다가기 좋은 곳이다. 전복따기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2코스까지 완공된 생태탐방로 ‘개도 사람길’은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반건조 우럭, 건미역, 참전복 등 다양한 특산품도 구입할 수 있다.



개도 앞바다에 떠 있는 해상펜션.

따라 갈파래, 모자반, 미역, 다시마 등 다양한 먹이를 먹고 자라는 개도산 전복은 육질이 다르고 오도독 씹히는 맛이 그만이다.

살아있는 고기를 말리는 반건조 우럭과 참돔도 인기가 많고 비렁에서 큰 파도를 맞고 자라는 미역은 국을 끓이면 깊이가 남다르다. KBS ‘1박2일’에 등장한 이연복 셰프가 감탄한 개도 막걸리도 명물이다.

특산물 구매와 펜션 예약은 어촌계장 휴대폰(010-3621-8943)으로 예약하면 된다.

대표 출길거리는 역시 바다 낚시다. 가파른 경사와 기암절벽 경관 등 갯바위 낚시 조건을 고루 갖춘 인기 스폿이 많아 1년이면 5000명 정도가 찾는다. 겨울에는 감성돔이 제철이고 요즘같은 여름엔 도다리, 우럭, 정통어 등이 많이 잡힌다.

대표 특산물인 전복따기 체험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1만 원을 내면 전복 한마리씩을 직접 딸 수 있다. 또 문어와 게, 바지락 등을 잡는 통발 체험(1만원)도 인기다. 지역에서 많이 나는 방풍나물 체험(1만원)도 해볼만하다. 발주인과 함께 방풍나물을 직접 따서 장아찌까지 담그보는 체험이다.

돌아가는 배편은 여수 여객선터미널 대신, 백야도 선착장으로 잡았다.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다. 신흥마을은 아직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숨어있는 보석같은 공간이다. 여유롭게 머물며 행복한 ‘섬마을 추억’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입소문 타고 방문객들 꾸준하게 늘어 마을기업 형태 특산물판매장 만들 것”

### 김정숙 어촌계장

개도 신흥마을 김정숙 어촌계장은 마을 홍보에 적극적이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김 계장은 기저질환으로 퇴원,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안내 해주었다.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화합이 잘되는 동네라고 자랑했다.

51가구 주민들의 생업은 어업 양식이다. 소득이 높은 참전복 양식업은 3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김계장은 활어 양식을 주 업으로 삼고 있다.

신흥마을의 특산물 중 인기 있는 건 반건조 우럭과 돔이다.

“뚝같이 말린 우럭이라고 해도 죽어 있는 생선을 건조한 것과 살아있는 생선을 건조한 것에는 맛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양식장에서 살아 있는 우럭을 건져 해풍에 말린 우럭은 맛이 일품입니다. 미역 역시 직접 산지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좋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건미역 작업은 고령의 주민들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한다. 젊은 이들이 채취해온 미역을 딱히 좋게 다듬고 말리는 일이 그들의 몫이다.

신흥마을 어촌계는 앞으로 마을기업 형태의 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꿈꾸고 있다. 현재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를 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특산물을 한자



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을은 아직 많이 알려진 관광지는 아니지만 최근 방문객들이 늘고 있어요. 둘레길도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시사철 사람들이 끊이지 않거든요. 3코스가 완성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신흥마을에 꼭 놀러오세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깨끗한 바닷물이 일품인 청석포 풍경.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



## 장비 걱정없이 떠나라...물빛 추억이 쏟아진다



바다 속 신비탐험 '스노클링'

텐트 사이로 스머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뜬다. 누운 채로 해상 일출을 감상하는 호사를 누린다. 호수처럼 잔잔한 여수 바다의 푸르름이 두 눈을 물들인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낭만의 바람결에 가슴 속까지 달달해진다. 무인도 수항도가 손에 닿을 듯 가깝다. 카약을 타고 가봐야겠다.

해양레저체험과 농촌체험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섬 캠핑을 원한다면 여수 금오도 대소여 마을 캠핑장을 적극 추천한다. 비렁길로 유명한 그 금오도 맞다.

여수 신기항에서 20분이면 도착한다. 우뚝 솟은 산과 울창한 숲이 보이는 이를 압도한다. 금오도 나무가 조선시대 궁궐을 짓는 데 사용됐다고 한다.

선착장에서 오른쪽이 비렁길 가는 길이다. '비렁'은 '벼랑'의 전라도 사투리로 주민들이 걸었던 벼랑에 나 있는 길을 산책길로 조성해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푸른 바다를 끼고 아찔한 절벽 위를 걷기 위해 매년 수 십 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비렁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대소여 마을은 천혜 환경을 지니고서도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발걸음이 뜸한 곳이다.

60여 가구에 100여 명이 사는 대소여마을은 1879년 여수 소라면 달천 마을의 김양단이 조정의 명을 받고 금오도에 사슴사냥을 나왔다가 이 곳의 경치에 반해 정착한 뒤 마을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버드나무숲이 있어 큰 버들개(큰 숲)와 작은 버들개(작은 숲)로 구분돼 불리다 마을이 커진 뒤 큰 버들개는 '대유', 작은 버들개는 '소유'라는 이름을 얻었다.

선착장에서 차로 5분여를 가다보면 캠핑장이 나타난다. 마치 동화 속 작은 무지개마을에 온 듯하다. 15년 전 폐교된 유성초등학교다. 주민들은 마을 활성화를 위해 이 폐교에 주목했다. 향일암과 각을 같이하는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전망, 맑고 깨끗한 바다, 다양한 해양레저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에 2016년 7월 캠핑장을 만들었다. 건물 벽은 색색의 페인트로 옷을 입히고 아이들이 뛰놀

바다를 둘러놓은 폐교 캠핑장

게스트 하우스·글램핑 등 다양

심해가 보일 듯 투명한 바다낚시

보리멸 펄떡임에 스트레스 홀홀

요트투어·카약...하루해가 짧아

던 운동장에서 텐트 데크와 글램핑 등을 설치했다.

캠핑장은 마을 주민들이 결성한 영농조합법인 '버들인'에서 운영 중이며 가장 큰 매력은 여수 바다가 한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다.

학교 교실을 그대로 살린 게스트하우스는 가족방, 2층 침대방, 온돌방 등 다양한 캠핑을 즐기기에 손색이 없다. 방마다 최대 8명까지 사용 가능하며 TV·냉장고·에어컨·침구 등이 갖춰져 있다. 또 캠핑 도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글램핑 3동은 내 집처럼 편안하다.

탁 트인 바다와 함께 감상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텐트 데크는 2~4인용에서 대형 텐트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또 쉼터데크는 지붕이 있어 비가 올 경우 텐트가 젖지 않아 이용하기 편리하다. 사이트마다 배전함을 갖춰 전기를 편리하게 쓸 수도 있다.

부대시설로는 샤워장, 취사를 할 수 있는 실내 개수실(탕비실), 바다를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옥상 매점, 금오도 해풍을 맞고 자란 방풍 잎과 방풍장아찌·매실엑기스 등을 판매하는 특산물 판매장 등이 있다.

1박 요금은 게스트 하우스·글램핑이 7~8월 성수기 10만원(비수기 평일 6만원, 주말·휴일 9만원)이고 기준인원 외 1인당 1만원이 추가되며, 캠핑 사이트는 성수기 2만5000원~3만5000원, 오토 캠핑장은 4만5000원이며 기준인원 외 1인당 5000원이 추가된다.

집을 풀었다면 이제 해양레저체험을 떠나자. 심해까지 보일 정도

로 맑은 바다 위에서 낚시대를 드리운다. 요즘엔 보리멸이 많이 낚인다. 갓 잡은 녀석을 재빠르게 회를 쳐 초고추장에 찍어 한 입에 넣으면 신선노름이 따로 없다.

요트투어, 가두리낚시, 통발이나 이강망(썰물 때 설치해 밀물 때 들어온 고기를 가두는 그물) 등 어장체험도 연중 즐길 수 있다. 카약을 타고 무인도를 갈 수 있는 아일랜드 호핑 투어, 맑은 바닷속을 유영할 수 있는 스노클링, 체험다이빙 등 다양한 해양레저를 즐기기에 하루 해가 짧다. 또한 방풍 따기(2월~10월), 개복숭아 따기(7월~10월), 표고버섯 따기(10월~11월, 2월~3월) 등 한겨울을 제외하고 즐길 수 있는 농촌체험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농촌체험과 카약, 가두리낚시를 묶은 당일 체험, 바비큐 타임·비렁길 탐방·스노클링·생존수영 등 바다체험을 할 수 있는 1박2일 코스, 여기에 무인도 체험이 추가되는 2박3일 코스 등 일정과 기호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해양 레저체험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비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식도락이 빠질 수 없다. 금오도 특산품은 전복과 해삼이다. 청정해역에서 자라 식감이 좋고 영양분이 풍부하다. 자연산이다 보니 전량 해녀들이 채취해 판매하고 있다. 갑오징어는 이강망으로 잡고 있다.

아침 해가 가장 먼저 찾는 곳, 제일의 비경 '비렁길'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금오도 캠핑장. 캠핑과 해양레저, 농촌체험으로 의미 있고 다채로운 캠핑을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이 입소문을 타면서 서울·파주 등 전국에서 찾는 이가 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10-7190-1944)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www.금오도캠핑장.com](http://www.금오도캠핑장.com)을 참고하면 된다.

/글=김지영 기자 [iknai@kwangju.co.kr](mailto:ikna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mailto:jeans@kwangju.co.kr)

마을기업  
'버들인' 이사  
김관숙씨

“그림같은 풍광·먹거리...와봐야 이 맛 압니다”

“젊은이들이 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여수 금오도 대소여마을 김관숙(71)씨는 20대에 물 사람이 되고 싶었다. 육지는 그에게 동경의 대상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가난의 굴레를 떨쳐내고자 무작정 상경했다. 그러나 기쁨과 희망도 잠시, 뜻을 펼치기도 전에 꿈을 접어야 했다.

“나무로 불을 지피며 밤을 지어 막던 시절이었어요. 장마가 한창이던 어느 날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밥 할 나무가 없어 굶고 있다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꿈을 접은 청년은 그렇게 다시 고향을 지키며 섬에서 희망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얘진 지금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무인도에 자생하는 방풍나물을 발견해 3~4개 마을 공동으로 특화작물로 키워냈고,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일흔이 넘은 주민들이 몸으로 부딪혀 보겠다고 나섰어요.



현재 생소한 사업에 경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 기만 했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11명이던 추진위원회 이사가 다 떨어져 나가고 지금은 6명만 남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라며 “비렁길 덕분에 관광객은 많아졌는데도 우리 마을은 지나가는 마을에 그쳤어요. 그래도 캠핑장이 생기고 방문객이 늘고 있어요.”라며 뿌듯해했다.

이와 함께 여촌의 미래에 대한 바람도 나타냈다.

“자연 어업에 의존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판매할 특산품이 없어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70~80대라 세대교체가 필요한데 어촌계 가입비가 3천만원이에요. 젊은이들이 돈이 어딴어요. 가입할 엄두를 못 내죠”라며 아쉬워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고향 대소여 마을이 가진 거라곤 천혜 환경 밖에 없어요. 그 환경을 잘 가꿔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싶고 성공할 거란 확신이 듭니다. 도로도 개설됐으면 좋겠고 바위산에 출렁다리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현대 국립공원이라 너무 한 그루 마음대로 벨 수가 없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죠.”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지영 기자 [iknai@kwangju.co.kr](mailto:iknai@kwangju.co.kr)

입구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방파제 앞을 지나가는 낚시배

찾아  
오시는 길

여수 금오도 대소여마을  
(전남 여수시 남면 여천금길 11-14)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신대교차로→여수, 목포)방면→해룡교차로→여수세계박람회장, 여수, 울촌)방면→돌산교차로→돌산, 향일암)방면→송시삼거리에서 '성두, 군내, 은적사 방면'→신기선착장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여수종합버스터미널→시내버스 109, 114번 '신기 정류장'하차(약2시간)→신기선착장(도보6분)

▶ 열차

서울·용산역→여수엑스포역→시내버스 2,333번~109번 환승'신기 정류장'하차(약2시간)→신기선착장(도보6분)



## 해상 펜션서 낚시·청정갯벌서 바지락 체험 ‘힐링의 섬’



지난달 말 하늘에서 내려다 본 소경도 모습. 섬 앞엔 여러개의 무인도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이번 휴가 휴식도 즐기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곳은 없을까. 육지와 떨어진 섬은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여수엔 힐링 여행지로 꼽히는 아름다운 섬이 즐비하다. 이 중에서도 소경도(小鏡島)는 힐링 여행지로 단연 으뜸이다. 여수시 월호동에 딸린 이 섬은 면적 0.42㎢, 해안선 길이는 3.5km다. 세대 수는 64가구로, 1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이다.

주변의 야도·가장도·소경도·송도 등 부속 도서와 함께 여수항의 서수도를 가로막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그야말로 경치는 비경의 연속이다. 광주에서 승용차로 1시간20분 타고 가면 여수 소경도선착장에 도착하는데, 이곳에서 하루에 10회 왕복운행하는 소경도행 철부선을 타면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섬에 도착하면 진한 바다내음과 함께 신비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춘 섬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지유의 섬 ‘소경도’=섬 전체가 고래처럼 생겼다고 해 소경도라고 부르며 사시

### 여수시 월호동에 딸린 100여명 거주 담벼락에 아이들 뛰노는 모습 그림벽화 동형 펜션 샤워실·에어컨 시설 등 갖춰 주변 무인도 기암괴석 해안선 따라 병풍 갯바위 낚시 포인트 많아 낚시꾼 몰려

사철 푸른 소나무림을 품고 있어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선착장에서 내린 뒤 마을 돌담길을 따라 10분 가량 걷다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야산의 정상에 올라 설 수 있다. 정상엔 100년 이상 된 꾀리 모양의 노송 서너 그루가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이를 바라보자면 신선이 따로 없다. 사방이 탁 트인 정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여수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너비 1m의 마을 고부랑길을 따라 정상을 내려오면 아늑한 집들이 웅기쭈기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담벼락엔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등이 담긴 벽화가 그려져 있다. 지붕은 집주인의 개

성에 맞춰 주황색·파란색·연두색·검정색 등의 색깔이 달리 칠해져 있는데, 웅기쭈기 모여 있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마을을 연상케 해 정겨움마저 준다. 섬 둘레에 조성된 길을 따라 걷다보면 푸른 바다와 각종 나무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쪽빛 남해 수평선을 따라지는 일출과 일몰은 군이 표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장관이다.

◇최고의 해상 펜션=섬서 35도를 훨씬 웃도는 가마솥 더위를 피하고 싶다면 소경도 해상 펜션을 이용해보자. 이 마을의 해상 펜션은 소경도 선착장에서 직선거리로 30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이 펜션은 신축된 것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 각 객실 내 바비큐 시설과 제트스파, 낚시터 등을 갖추고 있다. 또 푸른 바다가 멋스러운 조화를 이루면서 여행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펜션 내·외부 전경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데, 전 객실 오션뷰가 있어 나만의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드넓은 바다 위에서 낚시를 하며 여가를 즐길 수도 있다. 유료 낚시터를 갖춘 9평 규모의 동형 펜션 4동은 샤워실·냉장고·에어컨은 물론 상수도 시설까지 갖췄다. 펜션 아래 바다 속에는 물고기 서식처인 돌어초가 투하돼 낚시를 즐길 수 있다.

◇갯바위 낚시 포인트가 많은 소경도=여수에서 소경도는 매우 작은 섬 중 하나다. 섬에서 소형 어선을 타고 1~5분 내에 작은 무인도가 많다. 일부 무인도는 기

암괴석이 해안선을 따라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소나무 숲도 울창해 발 길이 닿는 곳마다 멋진 경치에 마음을 빼앗긴다.

소경도는 양질의 갯벌과 청정해역을 자랑한다. 낚시꾼들이 많이 찾는 이유다. 소경도에는 풍부한 어자원으로 우럭·놀래미 등 선상 낚시는 물론 유령 갯바위 낚시 포인트들이 많아 사시사철 낚시꾼들이 찾는다. 여수에서 낚시를 즐기고 싶다면 소경도로 가는 것을 추천한다.

◇‘바지락’ 등 인기 최고=청정해역인 이 섬은 바지락과 톳 등이 매우 유명하다. 이곳에서 채취되는 바지락은 종패를 뿌리지 않는 자연산이다. 모래가 섞인 소경도 갯벌은 미세알 성분이 풍부한 것이 특징. 소경도의 명물로 꼽히는 바지락은 타 지역에 비해 알이 굵고, 속이 짙 차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식감이 좋기에 이 섬을 찾는 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과거엔 채취된 바지락 전량이 일본으로 수출됐다. 이달과 내달엔 청각이 마을 앞에서 생산되는데, 청각 특유의 향이 고스란히 살아 있어 그 어느 지역의 청각보다 맛이 좋다. 또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톳이 불티나듯 팔린다. 이곳의 톳은 자연산으로, 다른 지역에서 종패로 사용될 정도로 신선했다. 이들 해조류는 맛은 물론 신선도도 좋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매우 좋다. 구매했을 김유곤 어촌계장(010-3612-0579)에게 하면 된다.

◇교통편=소경도로 가는 배편은 여수 소경도선착장을 이용하면 된다. 평일 기준 소경도행 철부선이 왕복 10회 운항한다. 출항시간은 조석간만의 차로 유동적이다. 소요시간은 5분~10분. 뱃삿도 비수기와 성수가 때가 다른데, 성수기에는 일반인 기준 왕복 3000원이다. 소경도에는 해상펜션(6객실)과 육상펜션(7객실) 등 숙박업소가 여러 곳에 달한다. 객실 수는 모두 6개. 성수기 기준 1박 5인 기준 13만~15만원.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소경도 선착장 인근에 설치된 해상 펜션.



청정해역인 소경도 갯벌에 노니는 게.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육상펜션.

### 찾아오는 길

여수 소경마을 (여수시 경호동 소경도2길 27)

- ▶ 승용차  
호남고속도로→신대교차로→여수,목포→방면→여수IC→시청→방면→석창사거리→시청,여수세관→방면→여항단지→소경도대합실→승선 후 10분 소요
-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여수종합버스터미널→여수시내버스 61, 777, 666, 52, 31번 ‘월호동주민센터건너 정류장’ 하차(35~40분 소요)→소경도대합실(도보3분)→승선 후 10분 소요
- ▶ 열차  
1.서울역, 용산역→여수엑스포역→여수시내버스 2번 ‘월호동주민센터건너 정류장’ 하차(35분 소요)→소경도대합실(도보3분)→승선 후 10분 소요  
2.서울역, 용산역→여천역→여수시내버스 61번 ‘신월금호아파트 정류장’ 하차(40분 소요)→소경도대합실(도보3분)→승선 후 10분 소요

## “톳·바지락 등 해조류 판로 개척 ... 6차산업 활성화”

### 김유곤 소경도어촌계장

“어촌이 고령화되면서 잡는 어업의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6차 산업화인데, 그 방향을 따라 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여수시 소경도 마을 앞 포구 정자에서 만난 김유곤(64) 소경도어촌

계장은 향후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

어촌의 고령화가 심화할수록 노동강도가 센 어로어업만 고집해선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생산되는 톳·바지락·청각 등 각종 해조류를 소량 생산하더라도 이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해조류를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마을을 오가는 도매상들에게 해조류를 판매해도 제값을 못 받는 만큼 육상·해상펜션 손님과 일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판매시스템 구축에 무진 애를 쓰고 있다.

김 어촌계장은 “성수가 났을 육상·해상

펜션 손님이 많은데, 비성수기 땀 찾는 이들이 많지 않다”면서 “마을에 사방이 트인 전망좋은 야산이 있다. 이곳과 연계되는 마을 길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바지락캐기 체험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소경도의 경우 관광객이 바지락캐기와 낚시 등 각종 어업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아나고·놀래미·감성돔 등 남해안에선 최고인 다양한 어종이 나오기 때문이다.

김 어촌계장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한 특성을 살려 바다체험 등 다른 곳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초기 투자금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마을에서 각종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준다면 어촌계가 지역 어업인들을 보호하고 어촌경제를 활성화하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바지락·손낙지·새꼬막 ... 먹거리 볼거리 풍성한 ‘황금바다’

봄 회천감자·여름 옥수수와 콩·가을 쪽파가 유명  
넓은 갯벌에서 손으로 잡는 ‘손낙지’ 신나는 체험  
체험 관광객들에 호미·장화 등 각종 장비도 대여  
비봉공룡알 화석지·차박물관·울포해수욕장 인근에

드넓은 논밭을 지나 한참을 달리다 보니 어느새 눈앞에 바다가 펼쳐진다. 바다를 끼고 언덕위로 등성등성 마을이 형성돼 있고 마을과 바다 사이 논밭에 갖가지 농작물이 자라고 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스팔트 아지랑이도 어촌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추지는 못했다.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석간마을의 첫 인상이다.

군농리는 9개의 자연마을로 이뤄져 있다. 4개 마을은 군농리 1구, 5개 마을은 군농리 2구로 각각 나뉜다. 군농리 2구에는 당산마을, 농소마을, 화동마을, 분매마을, 석간마을까지 92 가구에 170여명이 살고 있다. 이 중 23가구가 모여 어촌계를 이루고 있는데 바닷가에서 가장 인접한 석간마을 이름을 따 ‘석간어촌계’라 불린다.

이곳은 바다를 끼고 있지만 마을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이다. 봄에는 회천감자, 여름에는 옥수수나 콩·깨, 가을에는 쪽파를 수확한다. 기후가 좋아 삼모작이 가능한 지역이다. 특히 감자의 경우 음력 설 전에 심어서 5월에 출하를 하는데 제주도 다음으로 노지감자가 빨리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석간어촌계의 주 수입원은 바지락과 손낙지, 그리고 보성의 대표 특산물인 꼬막이다. 이곳에서 나는 꼬막은 ‘똥꼬막(새꼬막)’으로, 참꼬막과는 달리 껍질이 가늘고 털이 많이 나 있다. 새꼬막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갈퀴나 그물을 이용한 대량 수확이 가능해 가격은 참꼬막보다 저렴하다. 봄철 많이 잡히는 낙지는 손으로 잡는다고 해서 ‘손낙지’라고도 불린다. 이곳 갯벌에 낙지가 많이 사는 이유는 ‘절기미(칠계)’가 많기 때문이다. 절기미를 먹어서 삼는 낙지는 무안 새발낙지보다 크기가 크다. 금어기간 지나면 언제든 낙지를 잡을 수도 있다.

머리 위 강렬한 태양이 조금씩 서쪽으로 이동하는 때를 맞춰 바닷물도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오후 4시가 되자 마을 어장 33ha가 온전히 속살을 드러냈다. 아작은 개밭의 손이 미치지 않은 탓에 갈대숲 너머의 갯벌을 바라보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우리 득량만 갯벌에서 자라난 꼬막이나 낙지, 바지락은 맛이 아주 좋아요. 한마디로 빨로 해서는 서해안 대전보다 월등히 좋은 빨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마을을 소개해주는 오숙자 어촌계장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친다.

보성군과 고흥군, 장흥군으로 둘러싸인 득량만은 80년대 이전까지 ‘황금바다’로 불렸다. 자연산 키조개가 많이 생산되고 특히 꼬막 채묘로는 최적지였다. 그러다가 1982년 적조가 발생하면서 어장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고 황금바다의 명성은 사라져갔다.

“당시에는 꼬막 종패의 가격이 1미당 책정됐어요. 땅에 1cm 정도 크기의 종패를 가득 채워서 일일이 개당 가격을 매겼으니 돈이 얼마나 쏟아졌겠나 말이지요. 지금은 그때에 비해 1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 정도로 ‘황금바다’였다는 거지요.”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득량만의 어촌은 여전히 풍부하고 명성이 높다. 해마다 수확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석간어촌계에서만 20kg들이 새꼬막 3500망을 수확했다. 어촌계장은 황금바다 전성기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장을 제대로 관리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석간어촌계는 33ha 마을 어장 외에 49ha의 바다 양식장을 보유하고 있다. 취재진이 찾아간 날, 양식장에서는 꼬막 채묘가 진행되고 있었다. 8월 중순이나 9월 초 씨가 붙어서 1~2cm 크기의 종패가 되면 바다에 뿌린다. 이 종패가 1~2년 자라 새꼬막 성패가 되는 것이다. 마을에서 수확하는 꼬막이나 낙지 등은 인근 위판장으로 판매되지만 어촌계로 직접 연락할 경우 택배 배달도 가능하다.

석간마을은 어촌체험마을로 등록돼 있지는 않지만 어촌계에 연락을 할 경우 누구나 와서 무료로 갯벌을 체험할 수 있다. 칠게나 바지락, 쪽, 꼬막도 터러 수확할 수 있으며 어촌계에서는 가족단위 체험객들에게 호미나 장화 등 장비도 대여해 줄 계획이다. 물때는 바다타임([www.bada-time.com](http://www.bada-time.com)) 사이트에서 ‘녹동’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

마을과 바다 사이에는 보성군이 조성한 ‘다향길’이 이어진다. 가을에는 알록달록 코스모스를 감상할 수 있고 연내 팽나무를 심어 그늘도 조성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바라보는 일출이 장관이다. 주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데크도 마련돼 있다. 마을 인근에는 비봉공룡알 화석지와 한국차박물관, 울포해수욕장 등이 있어 어촌마을을 둘러보고 관광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의 어촌계장 010-3604-1174.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드넓은 논밭과 득량만 갯벌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석간어촌계 마을 전경. 당산·농소·화동·분매·석간의 5개 자연마을로 구성된 석간어촌계는 똥꼬막(새꼬막), 손낙지, 바지락이 많이 생산된다.



바다를 끼고 있지만 주민 대다수가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농어촌마을이다. 봄에는 회천감자, 여름에는 옥수수나 깨, 가을에는 쪽파까지 ‘삼모작’이 가능하다.

## “갯벌 체험 오세요. 대전보다 좋아요 마을~갯벌 이동 나무다리 설치 시급”

### 오숙자 어촌계장

“석간어촌계의 마을어장은 개밭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나 관광객이 바닷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어촌계를 이끌고 있다는 오숙자(여·66) 어촌계장은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바닷가 마을을 ‘찾아오는 어촌’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새꼬막이나 손낙지, 곶동, 쪽, 바지락 등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갯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찾아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해 인근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저희 어촌계에 소속된 대부분의 계열들은 ‘황금바다’였던 80년대 이전에 가입된 분들이 많습니다. 어업을 주로 하는 계열은 4가구 뿐이고 대부분 농사일에 종사하고 연세가 많다 보니 어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마을로 돌아오고 있어 그들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 계장은 마을어장 활성화를 위해 마을로 돌아오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자율어촌계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과학원에 갯벌 성분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며, 대전 머드축제에도 다녀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무엇보다 도시민들이 찾아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체험객들이 마을에서 갯벌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나무다리를 조성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갯벌 체험을 하고 싶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경우 저희 어촌계에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 어장 청소를 하고 안전하게 갯벌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숙박을 희망할 경우 저희 집에서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마을을 찾아주세요.”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라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 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